

장성군-中 이우시 무역·관광·교육 교류 확대

〈절강성〉

중 최대 일용품 도매시장...지역 특산물 수출 기대

필암서원-악록서원 상호 초청·유림 교류 등 합의

장성군이 서원간 교류와 우호도시 협력을 통해 중국과의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군은 24일 “지난 21일 중국 이우시에서 김용화 기획감사실장과 동봉명 이우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호교류 협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우시는 중국에서 가장 큰 일용품 도매시장으로 국제 컨벤션, 전시회, 박람회 등 각종 행사에 수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경제와 관광이 결합된 세계적인 상업무역도시다.

이번 협약으로 군과 이우시는 무역을 비롯해 문화관광, 교육, 환경위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번영과 발전

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상호 파견 및 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우의를 증진하고 공동 관심사항도 논의하기로 했다.

군은 우호교류 협의회 체결 후속조치로 지난 23일 중국 호남대 악록서원에서 박용우 문화관광과장, 좌권문 호남대 외사처장, 박병호 필암서원 원장, 주환민 악록서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필암서원과 악록서원 간 교류 협력을 위한 협의를 체결했다.

한국서원이 중국서원과 공식적으로 교류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필암서원(筆巖書院)은 하서 김인후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1590년에



지난 23일 중국 호남대에서 열린 장성 필암서원과 중국 악록서원간 교류협력 장면.

건립된 호남의 대표 서원이다. 악록서원(嶽麓書院)은 중국의 4대 서원 중 하나로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현재까지 석사와 박사 양성과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제향(서원

에서 지내는 제사) 때 상호 초청과 유림 및 서원 관계자 교류,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에 합의했다. 또 학생 및 공무원 교류, 문화예술단체 초청 공연, 21세기 장성이카데미와 악록서원 논란의 상호 초청 특강, 교육 프로그램 연구 교류 등 인적 및 교육에 관한 교류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에 있는 호남대 공자가카데미에서 각 프로그램에 관한 협조·연락 업무를 맡아 사업을 진행한다. 장성군은 이번 협약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을 앞둔 필암서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양수 장성군수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파트너로서 공동발전을 이뤄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특산물 수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희기자 yongho@



강진군이 최근 하저마을 등 갯벌 23ha에 투석식 참굴 양식장을 조성했다.

강진 참 굴양식장 조성

어업인 겨울철 농한기 고소득 틈새양식 품종

대구면 하저마을 등 2곳 23ha에 자연석 투석

강진군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겨울철 농한기에 고소득 틈새양식 품종인 참 굴양식장을 조성했다.

군은 24일 “강진군 대구면 하저마을과 미산마을 어촌 2개소 23ha의 참 굴양식장에 1억1000만원을 투입해 직경 50cm크기의 자연석을 갯벌 유희지에 골고루 투석했다”고 밝혔다.

투석식 참 굴양식방법은 갯벌의 유희공간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관리가 쉽다. 노동력 절감으로 갈수록 고령화돼 가고 있는 강진에 적합한 사업이라는 것이 군의 분석이다.

조류 흐름이 좋고 잔잔하며 햇빛의 노출을 많이 받는 곳에서 양식되는 투석식 굴은 줄에 매달아

양식하는 수하식 굴보다는 크기도 작고 채취도 어렵지만 맛이 뛰어나 2배 가량 비싸다는 점도 장점이다.

강진에는 굴 양식장 면적이 15개 어촌계에 48ha가 있으며, 매년 11월부터 초봄까지 연간 117t의 참굴을 채취해 6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김영기 강진군 해양산업과장은 “앞으로 양식지역을 추가 선정하는 등 면적을 늘려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참굴은 바위에 붙어 성장하며 하얀 굴 껍데기가 마치 꽃처럼 보인다 해서 ‘석화(石花)’라고도 부르며, 비타민, 글리코젠, 아연(Zn) 등이 풍부하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l@

장성 소방파출소 고층 화재뎀 ‘불구경만’

굴절·고층사다리차 없어...기존 장비도 낡아 정비 시급

장성군내 소방파출소의 장비가 오래된데 최근 고층건물의 잇따른 건축으로 반드시 필요한 고층화재를 위한 설비를 아예 갖추지 못해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6층에서 난 화재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경우까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장성군, 장성읍 소방파출소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장성읍 주공아파트 6층에서 화재가 발생, 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나고 1명이 부상 당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그러나 119 신

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펌프카로는 화재 진압이 불가능해 소방관들이 직접 계단을 올라 물을 뿌려 불길을 잡아야 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진압 시간이 지체되고 그만큼 피해도 늘어난다는 점이다. 현재 장성 관내에는 장성읍, 삼계면, 북이면 등 3곳에 소방파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파출소가 갖추고 있는 장비는 펌프카 7대, 구급차 3대, 에어메트 1개 등으로 고층화재 시 필수적인 굴절사다리차나 고층사다리차는 아예 없다.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날 경우 탑양소방서에 있는 굴절사다리차를 불러야 하지만, 신고 후 출동까지 30분 이상 시간이 소요돼 조기 진압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장성군에는 4층 이상 아파트는 71곳(2046세대), 13층 이상 아파트는 16곳(1661세대)이며, 그 외 4층 이상 건물은 100여 곳에 이른다.

최근 각 군 시가지에 10층 이상 고층 건물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 최소한 군 단위에는 굴절 또는 고층사다리차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주장이다.

/장성=김용희기자 yongho@

버섯종균 기능사 자격시험장 지정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24일 “연구원이 국가기술자격증 버섯종균기능사 실기시험장으로 지정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지난 18일 버섯산업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가기술자격시험장은 관련분야의 우수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기관을 시험장으로 인증해 활용하는 제도이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연구시설 1263㎡와 재배시험시설 4만3093㎡를 갖추고 있으며, 연구 장비 145종 271대를 보유하고 있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지난 2011년부터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및 재활을 돕기 위해 장흥군도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버섯종균기능사 취득교육을 추진, 올해 17명을 비롯해 지난 2012년 13명을 합격시키기도 했다.

김선재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장은 “국가기술자격시험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시험을 치르기 위해 타 지역까지 가야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돼 됐다”며 “앞으로 표고버섯 주산단지에서 끌어갈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희기자·중부취재본부장

전북

세계 발효 장인들 순창에 모였다

11개국 40여명 ‘연대회의’ 개최...산업육성 방안 모색

향후 기술교류 확대 ‘세계발효마을협회’ 설립 논의도

순창에 세계 11개국 40여 명의 세계 발효마을 관계자들이 한데 모였다. 이들은 향후 발효 기술교류를 늘려가고 세계발효마을협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순창군은 24일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세계발효마을 연대회의’가 불가리아, 우루과이, 독일, 폴란드, 스페인, 루마니아 등 11개국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밝혔다.

순창군과 임실군이 주최하고, 전주 발효식품연구소 조직위원회와 동서양발효사업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미래의 핵심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발효산업에 대한 새로운 도약과 준비’라는 주제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추후 ‘세계발효마을협회’를 설립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순창군과 루마니아 로만시 간 발효산업에 대한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11개국의 발효식품 미니전시회와 상품설명회까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스페인 와인위원회 사무총장인 호세루이스, 불가리아를 포

함한 발효마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치즈기업인 델타의 설립자 코스타 멘타, 유럽권을 중심으로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브레드 닥터의 로버트 코박스 대표 등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그동안 순창군은 풍을 이용한 각종 발효식품과 함께 고추장이라는 소스로 제2의 경쟁자가 없는 지역브랜드를 키워 왔다”며 “이제는 순창군을 비롯한 많은 기관들이 다함께 협력해 새로운 산업과 미래까지 창출을 위해 발효산업 육성에 동참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순창군과 임실군이 지자체 연계협력사업 중 하나로 추진됐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단신

정읍시 단풍절 불법노점상 특별단속

정읍시가 단풍절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하고 산뜻한 행사분위기 조성을 위해 2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합동단속반 편성에 불법노점상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노점단속(8명), 교통지도 단속(5명), 위생단속(1명) 등 3개 분야에 하루 14명의 시청 직원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할 예정이다. 시는 노점상 발견 시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불응할 때는 도로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적치물을 즉시 강제철거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노점상 특별단속 현수막을 내걸고 25일까지 불법 노점행위에 대한 예비단속을 벌이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군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완료

순창군은 24일 오후 일일 처리용량 2500t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지난 2011년 11월 착공했으며, 2년간 197억원을 투자해 유량조정조 1지, 침전지 2지, 처리조 4지, 총인시설 1

동 등 시설을 구비했다. 군은 그동안 순창읍에 하수처리구역이 확대되고 농공단지 조성 등 하수 발생량이 크게 늘었으나 하수처리시설이 부족해 비가 오면 하수를 하천으로 방류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남원 농촌체험마을협의회 창립총회

남원시는 24일 “지역 농촌체험마을 간 정보·경험·지식의 교류 등을 통해 농촌체험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3일 이백면 농촌종합개발 요천권역 사무실에서 남원시농촌체험마을협의회 창립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한 마을은 23곳으로, 초대 협의회장은 김용

준씨(농촌마을종합개발 요천권역 위원장)가 선출됐다. 이들 마을은 내년 초까지 사단법인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고 남원시 농촌체험 마을 운영방향 제시, 도시민과 중간매개체로의 역할 및 정보 공유, 회원 교육 등에 공동참여할 예정이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고창서 ‘착한가격업소 전국연합회’ 워크숍

고창군에서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시도 대표자와 관계공무원 등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착한가격업소 전국연합회’ 워크숍이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안전행정부 장관 위촉장 수여, 홈페이지 구축 및 다양한 홍보방안 강구, 자생력 강화를

위한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실천결의문 채택과 발전방안에 대해 열린 토론회가 이어졌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시군구 추천과 안전행정부 최종승인을 거쳐 지정되며, 현재 전국에 6000여 곳이 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 발전 교육강사 40명 집중연수 마쳐

정읍교육지원청

정읍교육지원청은 24일 동학농민혁명정신을 널리 알리고 동학농민혁명 교육강사 양성을 위해 마련한 ‘동학혁명 집중연수’를 4주간에 걸쳐 실시하고 수료식을 마쳤다.

지난달 26일부터 매주 월·목요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이뤄진 이번 집중연수에는 정읍의 초·중등교사, 시민문화단체, 학부모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정읍교육지원청은 이석문 교육장이 취임 이후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발전교육’을 특색사업으로 선정해 뒤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왔다.

수료식을 마친 강사진들은 오는 26일 동학혁명 유적지 답사를 통해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학생들이나 외부인들에게 제대로 안내하고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유적지 답사 능력까지 갖출 예정이다.

이석문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진원지인 정읍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마저 동학농민혁명정신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함양시키고자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전주 ‘마을리더’ 수료식

전주시는 24일 오후 현대해상빌딩 5층 회의실에서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사업의 하나로 열린 하반기 마을만들기 ‘마을리더 양성 아카데미’ 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사진> 이날 수료식에는 수강생 및 코디네이터,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마을리더 양성 아카데미’ 교육과정은 총 12강좌로 주요내용은

마을만들기 개념, 마을역사 및 자원조사, 현장실습,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 역할, 선진지 견학 등으로 구성됐다. 상반기에도 31명이 수료한 바 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수료생들 전원이 발표회를 통해 향후 마을에서의 역할과 추진할 사업계획 등을 발표하고,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활발한 토론시간을 가졌다.

/전주=군산=박승기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향교 원로 문신 공경 기로연 개최

고창향교(전교 조동규)는 23일 유교문화의 하나인 기로연(耆老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수 고창군수, 유림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로연은 조선시대 기로소에 등록된 70세 이상 원로 문신들을 위무하고 공경하기 위해 조정에서 베풀던 행사를 말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수 고창군수, 유림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로연은 조선시대 기로소에 등록된 70세 이상 원로 문신들을 위무하고 공경하기 위해 조정에서 베풀던 행사를 말한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